

광주시, 미래차 선도도시 구축 사업 탄력 받는다

‘미래차 전환 명품선도기업 육성’·‘지역 성장사다리 점프업’ 사업 중기부 지역특화프로젝트 선정...3년간 국비 등 1299억원 투입 중견기업 육성·미래차 생태계 강화...대기업 의존 구조 개선 기대

광주시가 정부의 미래차 전환 기업육성 분야 지역특화프로젝트 등에 선정되면서, 지역의 미래가 걸린 ‘미래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 ‘미래차 전환 명품선도기업 육성’과

‘지역 성장사다리 점프업(Jump Up) 프로젝트’ 등 2개 과제가 선정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는 미래차 국가산단과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지정에 이어 중기부 프로젝트에 2개 과제가 동시에 선정됨에 따라 미래차 선도도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특화 프로젝트’는 지방중기청이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중소기업 중심의 탄탄한 지역경제 구조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미래차 전환 지원에 국비 포함 745억원, 명품기업 육성에 국비 포함 554억원 등 3년간 총 1299억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를 제출해 선정됐다. 중기부는 이달 중 국비 지원 규모를 확정한다.
‘미래차 전환 소부장 특화명품선도기업 육성’ 프로젝트는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조기 성과 창출과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 성장사다리 점프업(Jump Up)’ 프로젝트

는 모빌리티 등 지역 명품강소기업과 연계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지역경제와 주축산업을 견인할 중견기업을 육성하고 기존 내연차 기반 중소기업의 미래차 전환, 미래차 소부장 기업의 성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산업의 최대 약점 중 하나인 ‘높은 대기업 의존형 산업구조’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등 컨설팅, 창업중심 대학을 통한 지원,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출바우처, 지역주력산업 기업지원,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합하고,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적용해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지역 자동차산업 육성 위해 이번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더해 다양한 기업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그동안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 자동차부품 산업계의 미래차 전환에 대한 대응에 대한 방안이 필요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명품강소 중견기업과 미래차 전환을 희망하는 자동차 부품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18 성폭력피해자 지원 협약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13일 5·18민주화운동 ‘성폭력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법률·심리적 지원을 위해 광주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지방정가 라운지

서용규 시의원 “5년간 지반 침하 132건...대책 마련해야”

노후 하수관 손상으로 인해 광주지역 지반 침하가 다른 광역단체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용규 광주시의원(민주·비례)은 13일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국 지반 침하 1290건 중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침하는 594건으로 46%고, 광주시는 2021년 6건, 지난해 7건, 올해 14건이나 된다”며 “노후 관로를 최대한 파악해 정비 관련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설치 연도 정보가 없는 하수관은 총연장 4049km중 45%인 1810km고, 3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이 12%(499km)다.
또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지반 침하 1290건 중 광주에서는 132건이 발생했다. 대



구 25건, 인천 52건, 대전 94건 등 다른 광역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서 의원은 “해당 수치는 단순 포트폴리오 등은 제외하고 지반 침하 발생 통보 기준에 따라 면적 1㎡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이거나 사망·실종·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만 포함했다”며 “기준에 맞지 않는 더 많은 지반 침하 발생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 시설물인 하수관은 민간사업자와 관리 기관에 의한 수기 작성, 연도 미기재 등 이유로 정보 오류가 발생한다”며 “파악된 노후 관로에 대해 단계적으로 빈틈없이 교체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서 국내 최대 광융합산업 전문전시회 열린다

15~16일 150여 기업·기관 참여...16개국 100명 해외바이어 초청

광주에서 혁신적 광융합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 전시회가 열린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15~16일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최대 광융합산업전시회인 ‘포토닉스 코리아 2023(제21회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를 개최한다.
광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국내 최대 광융합산업 전문 전시회다.

올해 전시회에서는 ‘광융합산업의 중심도시’ 광주를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인 광기술이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미래형자동차 및 광의료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분야는 물론 일상에 적용되는 광융합산업 신기술과 신제품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LG이노텍·트로닉스·옵토닉스·에스엔엠메디컬 등 광융합산업 관련기업을 비롯한 한국광기술원·한국광학화·키엘연구원(옛 한국조명ICT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광주테크노파크·한

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광주그린카진흥원·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국내 광융합산업 관련 150여 기업과 기관이 250여개 부스를 설치한다.
특히 미국·일본·베트남 등 전 세계 16개국 100여 명의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수출 상담회도 열린다. 또 광융합기술 관련 학술회의(컨퍼런스)도 예정돼 있다. 학술회의에서는 ETRI 호남권연구센터의 보유 기술 공유를 통한 지역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테크데이(Tech Day, 15일) 등 미래 바이오 헬스 산업, 미래 반도체 분야 세미나 등이 함께 개최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심창욱 시의원 “시립발레단, 사적 협연 계약 감사 요청”

심창욱 광주시의원(민주·북구5)은 13일 “광주시립발레단이 공고 없이 사적 특수 관계에 있는 특정 협연자와 계약하고, 공연비를 გადა 지급했다”며 광주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예술의전당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발레단이 지난해 10월 ‘돈키호테’와 올해 10월 ‘지젤’ 공연에서 협연한 오케스트라단은 사적 특수 관계에 있다”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에는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 예술의전당 보수 규정상 오케스트라단 협연은 공연당 500만~2000만원을 지급하는데 해당 오케스트라단은 지난해 돈키호테 공연 시 67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자 지휘료 역시 4회 1000만원을 받았다.



심 의원은 “오케스트라 이력과 경력 대비 공연보상금을 გადა 지급했다”며 “시립발레단장과 해당 오케스트라단장은 이전부터 협연하며 아는 사이고 오케스트라단장의 딸이 지휘해 지휘료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임 발레단원 채용 시 공개 채용을 거치지 않고 단장 추천으로 채용하는 것도 심각한 행태”라며 시장을 촉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술 단체에서 공연 협연자 섭외 시 예술감독, 부감독, 운영실장이 협의해 공연 성격에 적합한 협연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공연비 역시 ‘문화예술회관 보상금 지급 규정’을 준수해 지급했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 반영구적 사용가능
- ➡ 관리의 간소화
- ➡ 낮은 관리비
- ➡ 자연과의 동화
-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